

## 15. 구원의 경로

2012. 4. 8.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중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셨겠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을 예언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20:1~3]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1.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그 일을 여러 가지 표상으로 예언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구주를 바르게 찾아 믿을 수 있게 하신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업을 하시는데 당장 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긴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는지요?

답: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이미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이런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답이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미 사망이 되었지요. 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지요. 그 일을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사단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온 우주가 주목할 것이고 루시퍼도 결코 반격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2. 하나님의 구원 사업 진행 시간표가 있다면 구원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도 있겠습니까. 혹시 구원 경로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 진행 시간표를 표상적 예언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구주가 오실 사람 계통을 선정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이미 셋의 후손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지되 생명의 씨는 이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근거하지 아니한 말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고 탄생하는 경로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주가 탄생하고 구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사적 여건이 성숙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주가 탄생할 이 세상의 지리적 여건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곧 순종했지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육교(陸橋)가 되는 위치가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세 대륙을 왕래하는 길목입니다. 육교라고 하면 어렵고 길목이라고 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네요.

3. 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사업 진행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군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도록 하셨는지요?

답: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 드는 일이지요. 그래서 한 민족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기간이었지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백으로 추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3:5,6절을 보시겠습니까?

[창23:5,6]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방백이라는 말이 “나시”인데 왕, 또는 추장, 지도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높은 신분을 뜻하는 말인데, 특히 하나님의 나시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부의 고관이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함께 사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실수도 했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랄에 가서 그곳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 같은 허물을 또 범했지요. 그가 애굽에서 저지를 실수로 하같이 사라의 몸종으로 오게 되었고,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남으로 복음 사업 진행에 방해요소를 만들기도 했지요. 그런 연약함이 어찌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답: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 아브람이 새를 쪼개지 않습니다. 당시 언약은 짐승들을 머리에서부터 꼬리 쪽으로 안 가운데를 쪼개서 마

주 놓고 언약체결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언약에 허물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레위기에 새는 다 쪼개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요.(레1:17, 5:8)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네요.

[레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전혀 쪼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몸을 쪼개지만 완전히 쪼개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전혀 쪼개지 않았습디다. 경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지요. 쪼개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는 무시무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새는 쪼개지 않았습디다. 언약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물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솔개가 그 제물 위에 덮칩니다. 아브람이 얼른 쫓았지요. 솔개가 덮친 것은 사단이 틈탄 것입니다. 성경에 솔개는 부정한 새로 규정되어 있지요. 언약에 부정 댄다는 말입니다. 해질녘에 아브람은 깊이 잠들었고 캄캄함이 임해서 아브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허물이 생긴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해석은 나의 견해이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상황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결과로 아담의 후손들이 사망이 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세상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아담의 모든 후손이 고통 받는 것처럼 아브람이 언약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하게 된 것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이른 죄의 역사를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설명을 들으니 수궁이 갑니다. 솔개가 덮친 것이나 캄캄함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애청자들께서도 수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구원의 도리와 경로에 어떤 사실을 가르쳐줍니까?

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만드셨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곧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경로를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표상적 예언으로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6.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경로를 어떻게 잘 보여주었는지 자세히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답: 이 주제는 제가 금빛 새벽 시간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예언의 중심이 구주와 그의 구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의 종 노릇하게 된 것을 표상하고 애굽은 죄의 세상을 표상합니다. 계11:8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고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애굽이라고 했지요. 지리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유대 땅이지만 영적으로 이 죄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의 세상이 영적 애굽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430년을 종노릇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경로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과정이지요. 모세는 구주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이고,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지요.(고전5:7)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 받는 것을 표상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교회생활을 표상합니다. 요단강을 언약궤로 건넌 것은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행 경로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신약성경이 해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다 죄의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죄인으로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나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지요.

7. 아주 분명한군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기록들이 마 구주와 구원사업에 대한 표상적 예언이 되는 사건들과 사실들이라는 말씀이군요. 성소제도와 절기제도도 역시 같은 표상적 예언들이 되는지요?

답: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소는 당장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업을 표상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지으라고 했지요.(출25:8)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들은 구주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봉사가 어떤 것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요. 다 예언적 표상들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가 있고, 성소봉사는 매일의 봉사이고 지성소봉사는 일 년에 한번만 하는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사봉사, 떡 상 봉사, 등대 봉사, 분향단 봉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말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매일 행하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사실을 가르치는 예언적 봉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봉사는 예수님의 심판 봉사를 예표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구주와 그분이 행하실 구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즉 성경과 성경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연구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라고 단언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눅24:25~27)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실 구원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들이라는 말입니다.

8. 절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요. 성소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 같은데요.

답: 절기도 만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주신 절기는 모두 일곱 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첫째가 유월절인데,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지요. 이날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양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그리는 일이지요.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와 발과 양 손에 피를 흘리셨지요. 그날 밤에 출애굽 했습니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음식을 먹어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룩 없는 절기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력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누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안에 누룩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예언입니다. 그 첫날인 15일과 끝 날인 21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절 공휴일이라고 하면 쉽겠지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은 죄 없는 삶으로 안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업을 하실 시간표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신 것이지요.

9. 그렇다면 무교절과 기타 다른 절기도 시간표가 됩니까?

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교절 첫날이 15일인데 그 이튿날 곧 16일이 초실 요제절입니다. 그날 요제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날은 유월절 다음,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날부터 삼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요제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바울이 고전15:20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지요. 이날은 이스라엘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대강 3월 5일쯤 됩니다. 이날은 요제일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들이 삼월 일일에 시내산 밑에 도착하여 천막치고 그리고 또 3일간 몸을 정결케 했으니 3월 5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반포하신 날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명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지요. 이날 예수께서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즉위한 사실은 행 2:33과 5:3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기간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시110:2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지만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지요. 이것이 봄 절기들인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시간표를 예언한 것이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절기를 안지키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고 기념된다고 그날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그 요제일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정말 폐한 율법을 찾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침례로 기념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10: 그러면 일곱 절기라고 했는데 나머지 네 절기는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나요?

답: 그 절기들도 예수께서 구원사역을 행하시는 시간표들입니다. 그것은 다 가을에 있기 때문에 가을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을 예표하는 예언적 절기들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 7월 1일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맞을 준비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10일간은 유대인들의 회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야밈 노라임”이라고 하는데 뜻은 두려운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일 년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10일 동안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욥 키푸르라고 하는데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기쁨을 표하는 날들로서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나타내지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예언을 살필 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기록들을 통하여 구속의 경로와 일정을 잘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성취된 일을 살피면 황홀해지기까지 합니다. 구원의 경로라는 표현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은 정밀하지요?

11.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세히 모든 것을 예언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잘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